

AUTHOR 이승미

TITLE 개혁주의 성경해석  
- 대 전제, 석의, 그리고 대 원리 -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7 no.1 (September, 1998): 61-89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창조기사의 목적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과 만물이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창조기사의 메시지는 실로 종말적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의 언약을 성립시키는 핵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종말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

## 개혁주의 성경해석<sup>1)</sup>

— 대 전제, 석의, 그리고 대 원리 —

이 승 미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감사드린다.

부산의 고려신학대학원과 고베 개혁파신학교(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교수·학생간의 교류와 강의 교류까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배교적이고, 변하는 악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확장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줄 안다.

본 강의의 주제를 “개혁주의 성경해석: 대 전제, 석의, 그리고 대 원리”라고 잡은 것은 성경해석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성경해석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이론들을 많은 학자들이 소개해 왔다. 그 중에 슐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 칼 바르트(Karl Barth), 볼트만(Bultmann), 후스(Fuchs), 에벨링(Ebeling), 판넨베르크(Pannenberg), 가다머(Gadamer) 등이 있다. 이들의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인간의 경험, 이성, 합리성, 인간철학,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현대인들이게는 많은 인기와 매력을 끌어왔고 계속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1) 본 강의는 1997. 2. 13-14에 일본 고베신학교(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행한 강의 내용이다. 강의 초안을 정리, 요약하는 데 박우택 목사(대전한샘교회 담임)가 수고했다.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계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계시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하나님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던 칼빈(Calvin)을 위시한 개혁주의 학자들의 성경해석원리와 이론이 보다 진실성이 있고, 균형잡힌 해석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옛날 사도들이 보여주었고, 선배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신실한 종들이 전하고 파수해 온 이와 같은 노선에 우리가 서 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다.

본 강의에서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해석 원리나 이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고 대신 성경 66권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또한 우리 선배 개혁주의 학자들이 그 동안 애써 연구하며 밝혀 놓은 원리와 이론들을 토대로 이를 다루려고 한다.

## 1. 성경해석의 대전제들

성경해석을 함에 있어 해석자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전제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해석의 전제 문제는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

### 1.1. 인간의 전적타락을 고백해야 한다.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칼빈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격 분야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어두워졌음을 그의 「기독교강요」 II. i. 3.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도 성경의 강조에 따라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지성(intelligence)과 감정(emotion)과 의지(will)가 불완전하다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해야 할 해석자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1) 마태복음 16:21-23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다. 베드로는 이 본문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훌륭한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것을 만류하고, 죽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매우 칭찬할 일인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 (2) 디모데전서 1:13

바울은 “내가 전에는 꾀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 이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랑, 충성, 열정은 대단했으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한 때 매우 어두웠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후부터는 그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는 주님의 것과 부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해석자로서 먼저 성경본문을 펼쳐 직접 해석하려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죄로인해 어두워진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 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직관이나 선입견, 감정의 변화에 따라 성경을 그릇 해석할 수 있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 1.2.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 그리고 의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결국 기도하게 된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풍요로운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지 강조하였다.<sup>2)</sup> 우리가 해석자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

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기하고 겸손히 그의 도움을 요청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된다.

옛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10-11에서 “자기 속에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고 하였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고(요16:13),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요14:26). 또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의 뜻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것들을 그대로 해석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해 주실 것이다(요16:14-15).

### 1.3.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할 사람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성경관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경을 인간 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믿음과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 (1)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canon)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을 완성된 단위로서의 성경 전체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완성된 성경전체로서의 표현은 루터(M. Luther)의 성경에 대한 차등적 견해까지도 배제하는 것이다. 유일하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규범이라

2) J.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x x

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가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성경해석자로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권위있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부분, 어떤 성경은 가볍게 혹은 권위가 저급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2) 유기적으로 영감된(organically inspired)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기록할 때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실 때 친히 늘랄만한 이적이거나, 혹은 어떤 신비스럽고 이상한 방법으로 일괄 기록된 것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다.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 신약은 주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셨다. 그렇다고 이들의 지, 정, 의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고, 손에 펜을 들게 하여 하나님이 불러 주는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출신, 가문, 인격, 지식, 성품, 경험들 저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셨다. 우리가 성경의 각권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문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책은 소박하고 쉬운 문체로, 또 어떤 성경은 세련되고 어려운 것도 있다. 마태와 마가는 동일 사건의 본문을 “아이들”(παιδια)라고 하고 있으나,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그 방면의 전문가다운 표현으로 “어린아이”(βρεφην)라고 하고 있다(눅18:15). 그러므로 성경 안의 다양한 표현은 자연스러우며,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모순과 이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저자들 간의 강조점 혹은 특이성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 하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역사를 무시하거나 초월한 상태에서 기록하지 않으시고, 역사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시대시대마다 그의 백성들이 살던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하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성경본문에 나타난, 혹은 성경전체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알아야 한다. 성경저자와 1차 독자(수신자)의 구체적인 상황, 사회적인 형편, 문화적인 요소들을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역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역사, 각 성경의 기록 동기, 배경 등의 정확한 이해는 각 본문을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예를 들면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일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바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안하신 어떤 신성 불가침의 거룩한 문자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하셨던 그 본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한다면 성경언어에 대한 문법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 문장, 구문, 전후의 문맥, 문법의 특징에 정통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④ 성경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과 여러 시대, 여러 역사적 배경 표현과 강조점, 다양한 목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룩한 수집들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여러 저자들의 배후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의 의도와 계획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하시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꿰뚫는 통일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통일성은 성령(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시로 요약할 수 있다. 성경신학자인 게할더스 보스(G. Vos)는 구약의 계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신약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계시가 역사 가운데 구현되었는데 이 계시를 행동계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나 여러 사건들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타나거나 동반되고 있다. 또한 서신서들은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 설명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그 통일성을 발견하게 된다.

## 2. 성경해석 과정에서의 “석의”(釋義, Exegesis)

3)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302-304.

성경해석의 과정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석의 과정이요, 두 번째 과정은 석의의 결과를 현재의 독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이다. 적용과정을 강해(Exposition)라고 표현하기도 한다(A. B. Mickelson, R. B. Zuck 등). 학문적인 한계로 볼 때 “해석학”은 어디까지나 석의에 비중과 무게를 두고, “강해”는 설교학(Homiletics) 분야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해석학” 분야에서 본문을 현재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적용의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밝히므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설교학”분야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석의”의 결과에 대한 현재적 적용을 “해석학적 과제”(Hermeneutical Task)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J. C. Coetzee).

### 2.1. 석의의 정의

석의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처음에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던 그 본문에서 당시 본래의 뜻, 의도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그 본래의 뜻을 원형 그대로 가감없이 회복하는 과정이 석의이다.

음악가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유진 올만디, 혹은 카라얀, 토스카니니와 같은 훌륭한 지휘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보다 바인가르트너(F. Weingartner, 1863-1942)라는 분을 더 존경하고 훌륭하게 여긴다. 그것은 그의 매너와 기교, 특별한 제스처에 있지 않고 작곡자의 악보와 자세하고 조그만 지시들, 표현 하나하나를 작곡자의 의도에 맞도록 진실하게 나타내려

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성경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해석자는 이미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벌써 성령님은 그 해석자의 지·정·의를 억제하고 조정하고 있을 것이다. 해석자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살피어야 한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을 통하여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원저자의 의도와 뜻을 해석자의 어떤 지식과 상식과 이해를 첨가하지 않고 본래의 뜻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칼빈은 이와 같은 석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해석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convictions), 사적인 아이디어(personal ideas), 선호(preferences)등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해석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해석하는 자의 주관적인 사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본문을 충실히 석의하여 그 결과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청중에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정말 성령의 능력있는 종이고 성령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본문(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기록당시의 저자(Writer)를 통하여 당시의 독자(혹은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석의의 과정이라면 세 가지 요소, 즉 저자(Author, Writer), 역사적 배경(수신자 또는 독자가 처해있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성경본문(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문법을 이해하는 일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바른 석의를 위해서 해석자는 저자의 의도, 기록목적, 동기, 기록방법, 기

록당시의 상황, 지리적 형편, 저자의 출생, 그의 교육, 성격,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자의 모든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자나 독자가 처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 배경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실 때 수신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문제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 혹은 경고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수신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최초 기록 당시의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문의 단어, 문장, 구문, 문법의 특징 등을 잘 살펴 먼저 독자적으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석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신약, 구약총론을 참조하고 성경원어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성경원어를 매우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 거기에서' (then & there)의 하나님의 의도가 석의를 통해 분명해 졌다면 다음 단계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now & here)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구약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현재 한국이나 일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대선언 앞에서 동일한 상황,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석의의 결과 본문의 뜻이 분명해졌다면 현재 여기에서의 적용원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1서 22:18-28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다.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는 A.D. 90년인데, 이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다. 그러나 석의의 결과는 분명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많은 출현으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싸우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만일 사도적인 복음에 거하고 있 기만 한다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교회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의 석의의 결과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지역이면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찬탈하여 군림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 본문의 석의의 결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교회)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복음이다.

### 3. 성경해석의 대원리

#### 3.1. 한 본문에 대한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자는 바로 성경 자체이다.

이것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성경은 성경 자체를 위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강조에 부합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요, 너무나 평범한 듯한 쉬운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 원리를 무시하여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잃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 (1) 마태복음 4:3-10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불건전한 뜻, 행동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과 말로써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으나, 특이하고 놀라운 사실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구약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구약의 예언이 거짓말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였을 때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였다.

##### (2) 사도행전 2:25-28

주의 사도들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인용하였다(행 2:17-21, 25-28; 행 13:16-23 등). 그 중에 사도행전 2:25-28의 인용은 오순절 성령강림시에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8-11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부활 사건은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분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다.

##### (3) 출애굽기 25-26장; 레위기

여기에 보면 장막 혹은 성막, 성소, 속죄소등의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길게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어렵게 여길만한 곳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요약적인 해설에 해당



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속죄의 죽으심과 관련된 메시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4) 시편 69:25; 시편 109:8

시편의 이와 같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 자체 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바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시편의 내용을 언어학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문법적으로 살펴보아도 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 1:16 이하를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 다윗을 통하여 벌써 가롯 유다의 종말의 비참함을 암시적으로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3.2. 보다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1) 마태복음 27:45-56; 마가복음 15:33-41; 누가복음 23:44-49; 요한복음 19:28-30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 ① 빌라도가 죽였다.
- ② 가롯 유다가 배신으로 죽였다.
- ③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였다.
- ④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였다.

이 사실들은 부분적으로 다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던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곧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밀스러운 부분인 것을 또 다른 성경을 참조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만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만을 읽고, 그 본문 안에서만 해석한다고 할 때 바른 해석에 접근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은, 다소 여러 시각들이 있으므로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거나 예언해 놓은 고린도전서 15:3; 갈라디아서 1:4; 베드로전서 2:24; 이사야 53:1 이하를 참조함으로써 균형 잡힌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3은 가장 선명하게 해석하고 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2) 요한일서 2:20, 27

여기에 Χρισμα(“기름부음”)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Χρισμα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다른 곳의 성경을 참고해서 해석할 때, 즉 요한복음 16:69; 14:26; 16:13, 16-17에서 Χρισμα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인 표현이며, 명칭임을 깨닫게 된다. Χρισμα의 사역은 바로 요한복음 14-16장에 계시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매우 닮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3) 요한계시록 20장

이 장에 나타나는 용, 마귀, 사단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안에서만 깊이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장만 가지고 연구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흐르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관련된 다른 성경, 즉 요한1서 2:13-14;

3:8; 히브리서 2:14; 로마서 8:37; 요한복음 16:11을 참고한다면 용이나 사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분명해진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사단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된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주된 세력이 꺾인 형편이고 우리의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 3.3. 하나님의 계시역사에는 시대마다의 진전단계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과,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계시역사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아브라함 이전 시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창세기 3:15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원시복음에서 보이셨다.

#### (2) 족장 시대(아브라함 ~ 모세 출생)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1-8을 통하여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계시하였다. 메시아로 말미암은 큰 민족을 형성하고 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이셨다.

#### (3)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심으로, 보다 하나님의 백

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

#### (4) 왕정 시대(다윗 ~ 세레 요한)

왕정시대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즉 그의 후손(메시아)을 통하여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 동시에, 땅 위의 나라는 통치자인 왕도 불완전하고, 백성들도 죄로 오염되어 불완전함을 거듭 강조한 후(북·남 이스라엘이 다 망했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직·간접으로 강조하셨다.

#### (5) 그리스도의 땅 위의 사역 시대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구속사역(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6) 오순절 성령 강림 ~ 주의 재림

오순절에 강림하신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죽으심과 부활)을 유대 백성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선포하고 증거 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확장해 나가셨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시다. 이 성령의 사역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성경 해석자는 보다 분명하게 밝혀진 계시(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강조한 증거)를 토대로, 즉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위의 시대적 단계에 따른 성경 분문을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역으로 구약의 여러 시대의 본문은 사도적 메시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3.4.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 당시의 시간이나 시대에 매이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여 영원히 역사한다.

#### (1) 예수님의 구약성경 해석 중에서 증거됨

##### ① 마태복음 22:29-32

이 본문 중에 31-32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τὸ ῥήθην ὑπὸ θεοῦ λέγοντος Ἐγώ... οὐκ ἔστιν ὁ θεὸς νεκρῶν ἀλλὰ ζώντων)라고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A.D. 30년대의 유대인 청중들이다. 그런데 B.C. 1400년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과 연결시켰다.

##### ② 마가복음 14:24; 마태복음 26:28

#### (2) 사도들의 증거:

사 53:5-6

5절 -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6절 - “우리 무리의 죄악”

막 14:24 - “잔” -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고전 15:3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벧전 2:21 -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24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일 1:7~10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때에만 해당하고, 그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의 말씀과 약속과 효력(결과)은 영원토록 현재적으로 효력있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상, 철학, 생활관습, 문화, 체험이 아닌, 삼위 하나님 중심, 특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계획 등 구속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참고: 벧전1:24-25; 마 24:35; 벧후1:21 등)

### 3.5. 성경 계시에는 한 목표(혹은 지향점: Scopus)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성경내용들은 성경계시 전체의 지향목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24:27).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요”(눅24: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15:3-4).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벧전1:11).

위의 구절들을 볼 때 모든 성경의 계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복음서에는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사건을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다.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증거, 회상,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요14:26; 15:26-27; 16:14).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계시의 중심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계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어느 한 부분이든 그 부분은 전체 계시와 따로 떼어 내어 분리시켜 해석할 수 없다. 전후 문맥을 무시할 때 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본래 보이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빛나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인물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기드온, 삼손, 입다 등의 역사적인 사건을 본문으로 삼아 해석하여 설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과연 인간의 충성이나 겸손, 사랑, 순종, 회개, 지혜, 용기 등만을 목적으로 삼으셨겠는가? 물론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인간의 모범을 중요한 강조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초점을 맞추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원, 영생의 확신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향유하게 하신다.(히11:1-12:2; 행7:1-53; 행13:13-23). 성경에 대한 건전한 해석은 성경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계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외면하고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6. 역사적 본문에 대한 해석원리

신·구약성경은 많은 역사적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대한 풍부한 지식(역사적 사실, 사회 생활, 문화생활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진실에 바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당시의 다양한 사회생활, 문화생활, 건축술, 결혼관습 등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목적으로 읍기서를 기록하셨는가? 읍기서에 보면 읍의 재산의 규모와 가정의 자녀의 수, 그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읍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제시할 목적으로 읍기서를 기록했는가? 물론 읍의 역사적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은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된 것들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 기록하셨는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눅24:44) 기록되었다고 하셨다. 이 사실은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도 그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참고: 행3:14-36 ; 7:1-53 ; 13:17-31).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본문을 해석할 때, 역사적 사실들만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말씀하고, 명령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궁극적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역사적 본문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속사는 모든 시대를 포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구속사의 목표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역사적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사실들 중에 다음의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

(1)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선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2)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을 직·간접으로 어떻게 관련 및 연계를 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3) 현재적 상황에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3.7. 역사적 본문에 대한 해석원리의 적용

#### 3.7.1. 룻기1:1-14

이 본문은 분명히 역사적 본문이다. 이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다. 당시 흉년이 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한 가정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한 신앙인의 가정 역사이다. 여기에 집안의 식구들의 이름도 밝혀져 있다. 아마 꽤 유명한 집안인 것 같다. 이 역사적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역사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그러나 이방인의 지역인 모압에는 흉년이 없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다 참된 것이다. 역사의 어떤 단면을 밝혀주고 있다.

(2) 흉년이 들었을 때 신앙의 가정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느냐? 피난을 잘못 갔다. 신앙의 가정은 이사를 가되 지혜롭게 해야지, 이방지역 모압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다. 결국 거기서 가정이 망했다. 가장과 두 아들이 객사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은 이사를 잘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다.

(3) 한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아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

들의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나오미 과부를 높이 드러내어 이야기 도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과부라 할 지라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적용할 수도 있다.

(4) 신자 가정은 며느리를 잘 두어야 가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적용할 수도 있다. 비록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착하고 시어머니를 어꼴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룻과 같은 며느리를 보아야 한다고 적용할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적용은 모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고 다 본문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어떤 면에서 모두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우리의 오늘의 생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일 성경 해석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위의 4가지 전부를 다 취급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 매력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해석자가 어떤 점에서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

첫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선적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6, 8, 9, 13절에 각각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내리기도 하셨고 거두시기도 하셨다.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크게 역사하고 있다. 또한 나오미의 가정을 다 아시고 다스렸다. 하나님 우선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는 “성경은 성경 스스로 말씀한다”는 원리에 따라 이 본문을 위해 다른 성경을 참조해야 한다. 룻기서 전체를 보아야 하고, 또한 관련된 내용이 또 다른 성경 가운데서도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성경해석의 대원리를 적용하여 살펴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룻이 어떤 여자인가? 다윗 왕의 윗대 할머니였다. 나오미의 자부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1-16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마1:5).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도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떤 훌륭한 가문, 족보를 드러나게 하여 강조해서도 안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해 사사시대, 그 흉년 때에도 살아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몰락하다시피 한 한 가정을 건져 주셨다.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를 이루셨다. 당시에 모든 주위의 친척들조차도 저 집은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가망이 없었던 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역사의 과정을 보면 그 역사의 진전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구원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진전된 계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모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룻기서의 역사적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룻기서의 역사적 본문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

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룯기서의 본문에서 강조해야 할 주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몰락한 가정을 구원하신 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제라야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본문에서 어떤 인물을 세워 모범적인 해석을 삼가야 한다. 인간의 모범적 해석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체험 역시 삼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긴하나, 성경해석을 하기 앞서 성경해석의 대전제들을 살폈고, 또한 석의(Exegesis)에 대한 개념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과 해석을 위한 큰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성경해석에 대한 원리의 세칙들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다룰 수가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토대로 한 큰 원리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성경해석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로 어두워진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구체적 조명을 구해야 한다. 성경 본문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또한 계시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살피면서, 성경자체를 가장 권위있고 중요한 해석의 자료로 삼아, 본문의 원뜻을 회복시키려는 해석자의 수고와 열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진 하나님의 뜻을 설교에 적용함으로써 옛날 사도들이 전하고 생명을 걸고 파수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에도 우리 개혁주의 양 진영에서 계속 담대히 전파하고 이를 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 Berkhof, L.,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Sacred Hermeneutics*, Grand Rapids : Baker, 1952.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 Coetzee, J. C., “Die Betekenis Van Kruis en Opstanding by Rudolf Bultmann” (*Neotestamentica* 4.), 1970.
- Coetzee, J. C., De Klerk, B. J., Floor, L., “Die Hermeneutiese Van die Skrif met die Oog op Hedendaagse Kerklik-Etiese Vraagstukke” (*KOERS*, vol. 45, 18-36), 1980
- Coetzee, J. C., *Die Skrif en die Wetenskap: Hermeneutiese Reels. Potch.* : PU for CHE, 1984.
- Dutoit, A. B.,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n: Guide to the New Testament*, vol. 1, 77-171), 1979.
- Ferguson, S. B., “Exegesis” (*In: The Preacher and Preaching*, ed. by Logan, S. T., 192-211), 1986.
- Floor, L., “Calvin se Hermeneutiek in Vergelyking met Ebeling en Fuchs” (*In: Neotestamentica* 4), 1970.
- Floor, L., “The Hermeneutics of Calvin” (*In: Calvinus Reformator: His Contribution to Theology, Church and Society*, 181-91, PU for CHE), 1982.
- Greidanus, S., *Sola Scriptura: Problem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 Toronto: Wedge, 1970.

- Greidanus, S., *The Morde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 Jeanrond, W. G., *Theological Hermeneutics :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New York: Crossroad, 1991.
- Kaiser, W. C.,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 Biblical Exegesis for Preaching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1.
- Mickelsen, A. B., *Interpreting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63.
- Ohmann, H. M., "Christological Preaching on Historical Text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Lux Mundi*, vol. 2, No. 1), 1983.
- Ramm, B.,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74.
- Rossouw, H. W., "Calvin's Hermeneutics of the Holy Scripture" (*Calvinus Reformer*, 143-180, 1982.)
- Trimp, C., *The Relevance of Preaching in the Light of the Reformation's 'Sola Scriptura' Principl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36, No.1), trans. by Voorwinde, S., 1973.
- Zuck, R. B., *Basic Bible Interpretation*. Wheaton: Victor, 1991.
-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The Practice of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기독교문서선교회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Seoul, Korea, 1987.
- 고재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고려신학보 제

- 16집), 1988.
- 이승미, "계시 내용의 목표와 성경해석" (「고려신학보」 제 16집), 1988.
- 헬베르그 J. L., "구약성경 연구의 출발점과 방법: 신약성경과 교회 생활을 위한 의미" (「고려신학보」 제 12집), 986.